



한계란 없다 오직 연습만 있을 뿐



연습은 장엄한 구도(求道)의 길이었다
혹우 김대환 지음
현암사 펴냄 | 1만2천원

“북은 손이 아니라 가슴으로 쳐야한다. 여인을 껴안을 때 가슴이 먼저 나가 손으로 껴안 듯 가슴과 어깨의 힘으로 쳐야 깊이가 울린다.”

지난해 3월 2일 별세한 한국 타악 연주자 대가 흑우(黑雨) 김대환(1933~2004·前 중앙대 국악과 타악연희과 교수)의 타계 1주기를 맞아 김대환 기념사업회와 현암사가 고인의 생전 어록을 정리한 기념집을 출간했다. 제목은 <연습은 장엄한 구도의 길이었다>이다.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 무대에 이름이 더 알려진 김대환은 ‘한국 그룹사운드 음악의 큰 령’으로 불리는 인물. 2000년 10월 16일엔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공연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음악에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규정하며 젊은 시절부터 자나깨나 연습에 매달렸다. “젊은 시절 트럼펫이든 드럼이든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연습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위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럴수록 독종이 되어 갔다.

밤무대를 뛰고 오면 새벽 3시, 하숙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악기 창고로 들어갔다. 후배에게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워달라고 부탁한 뒤 날이 새도록 드럼을 두들겼다. 사람들과 말하는 시간도 아까워 혀 끝을 잘라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한다.

김대환은 자신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붓둥이를 들고 매섭게 훈련을 시켰다. ‘타고난 재능은 젊은 시절 반짝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김대환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은 것은, 타악 연주자로서보다 쌀 한 톨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겨넣은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으로서였다. 1968년 동남이순희 공연중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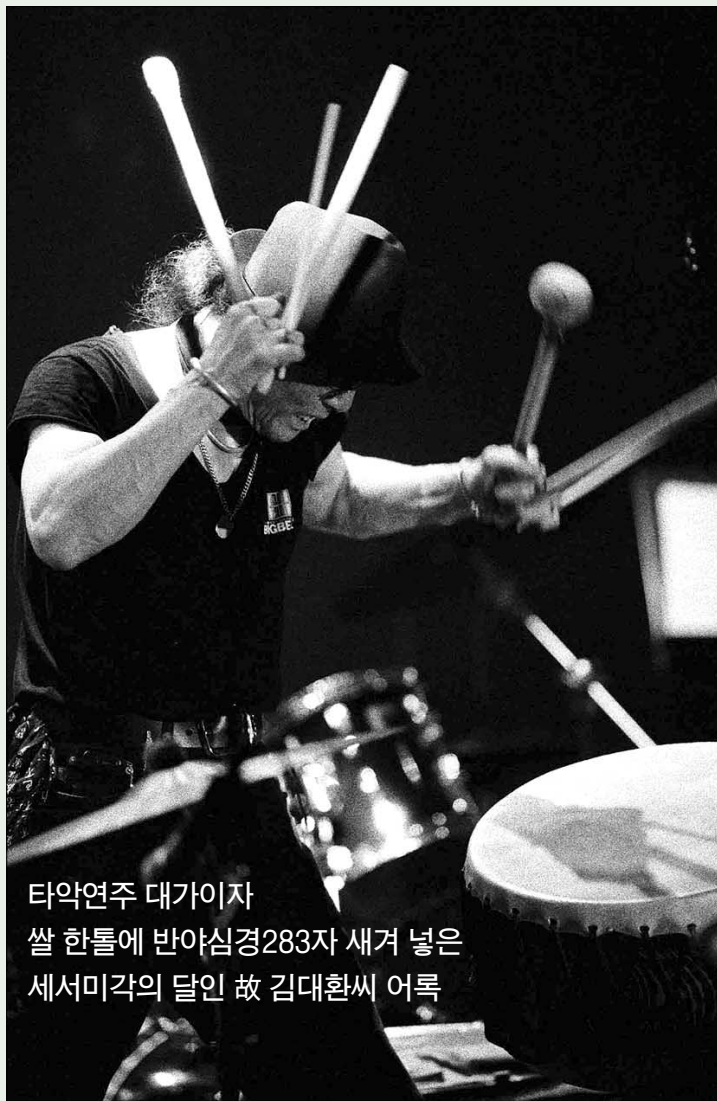
만고궁박물관을 구경하다가 16세기에 세각으로 새긴 글과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세서미각을 하게 된 출발이었다. 그에게 세각(微刻)은 단순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의미를 넘어 소리 연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는 “북판을 파고드는 칼끝의 사각사각하는 소리는 내 귀의 미세한 감각을 살려주고 소리의 세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했다. 뇌성벽력에서 이슬방울 굴러가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소리, 무질서한 감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것을 북소리로 구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각의 대가가 되기 위해 그가 달려온 삶 또한 연습의 연속이었다. 45배까지 확대 되는 공업용 현미경과 가느다란 철필을 구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한때는 그것도 모자라 모든 밤무대 출연을 중단하고 경기도 군포의 야산으로 들어가 움막속에서 글씨에만 몰두 했다. 특히 쌀 한톨에 글씨를 새기는 1%의 성공률도 안되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은 바로 무순임이라는 끝없는 훈련과 인내 앞에 당해낼 장사가 없다는 그의 철학같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5년동안의 길고 긴 작업 끝에 쌀 한톨에 283자의 <반야심경>을 새겨 넣은 일은 1990년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을 정도로 문화계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세각에 몰두한다. 그것은 북을 두드리는 일과 함께 나의 몸과 정신을 맑게 단련시켜 주는 일이다.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듯 보이지만 소리창기와 세각은 내게 있어 하나다. 둘 다 두드려서 생명을 깨운다는 점이 같다. 요령이나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닮았다.”

그의 말이 이 책을 덮는 순간 내내 가슴속에 세각으로 각인되는 듯 하다. 아마도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의 성실한 삶을 마주 대할 때 문이라. 김주열 기자 jkim@buddhapia.com



타악연주 대가이자 쌀 한톨에 반야심경283자 새겨 넣은 세서미각의 달인 김대환씨 어록

김대환씨가 남긴 말...말...말...

- ◆ 북소리는 청각만이 아니라 눈으로 들을 수 있고 피부-손과 발의 진동으로 들으며 연주할 수 있다. 북은 혼을 파고 드는 악기다.
- ◆ 연습은 일종의 구도다. 공연을 앞두고 반복하는 소나기 연습은 소용없다. 연습은 일상생활과 같아야 한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고 불안해져야 진짜 연습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콘서트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빠져 쓰러지지만, 나는 콘서트를 휴식처럼 끝낸다. 수행하듯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
- ◆ 글씨와 소리는 닮았다. 소리가 클 때는 글씨에 힘이 들어가고, 소리가 작을 때는 글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가 몸에 배어 있으면 소리가 글씨를 돕고 글씨가 소리를 돕는다.
- ◆ 나는 날씨가 달라져 북소리를 한결같이 내는 법을 터득했다. 연습을 통해 북은 내가 되고 나는 북이 된 것이다.



역사와 이데올로기
강철구 지음 | 용의 숲 펴냄 | 2만원

서구중심주의는 비단 서양 역사학의 한 흐름이나 경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학문과 문화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깊숙하고 폭넓게 드리워져 있는 지우기 힘든 그림자다. 때로는 공개적이고 폭력적 모습으로, 때로는 감춰지고 은밀한 모습으로, 혹은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의 가면을 쓰고 인문·사회과학의 중심부를 지배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E.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나 S.아민의 <유럽중심주의>, A.G.프랭크의 <리오리엔트>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 서구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는 비판되기 시작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학계는 이러한 저술들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머물고 있어, 유럽중심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정립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출간된 이화여대 사학전공 강철구 교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서양 역사학을 지배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국내 서양사 분야에서는 처음 이뤄진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중심주의 조목조목 해부

강철구 교수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는 서구중심주의나 유럽중심주의를 심정적으로 비판하거나 주관적 관점에서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려고한 실험적 성격의 책이 아니라 대 체의 강점이 있다. 저자는 ‘서양의 역사학이 유럽인의 우월성과 세계지배력 강화를 바로 역사를 통해 확보하고 역사이론과 철학을 통해 일반화하려고 했다’는 가설을 구체적 사료연구 등의 경험적 종합방법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가설 입증에 이어 서양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 극복의 대안으로까지 나아간다. 이 책이 단순한 역사이론서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저자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 학자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비판이 촉발될 수도 있겠고, 또 몇 군데서 보다 세심한 논증과 해명이 요구될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서구 중심주의와 그 이론 비판에 선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의 역사왜곡이 서양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학계 일반에 확산시키는 물론 우리 한국인의 역사인식에도 큰 악영향을 미쳐, 우리 스스로 비유럽권과 한국문화를 폄하하게 되는 구조적 태도를 경고하는 대목에 이르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심각성을 떠올리게 된다.

서양학이 이 땅에 들어 온지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이제 우리의 모든 학문영역, 특히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서양’이라는 본질어는 사라져버렸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화’된 서양학에서 부정적 독소조항을 가려내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 학계의 잠원 과제다. 우리 것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서양학을 진정한 학문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런 맥락에서 <역사와 이데올로기>와 같은 저술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 자국이 돼 후속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기를 기대한다. ■윤병태(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영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햇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 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와 같은 다수의 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의학전문가의 이호섭 박사의

석불 사랑 20년

천년의 미소 - 한국석불을 찾아서

이호섭 글/사진 문장출판사
가격 : 9만 5천원

“저마다의 얼굴과 수인(手印)을 가진 우리 석불들에서는 은은하고 고요한 미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近世에 이르러 수많은 石佛은 많이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이 분명하며 소중한 예술품입니다. 이 귀중한 유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고문 이호섭 박사가 20여년 간 전국 550여 곳의 석불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악도, 조성연대, 특징 등을 정리했다.

구입문의 : (02)2678-3042
이호섭 이비인후과